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조 영 아[†]

전 우 택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근래 들어 남한 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남한 대학생활 적응 양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출신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 동기 및 대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적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출신 학생들의 대학입학 동기를 (1) 남한의 전체의 학력 중시 풍토 분위기의 영향 (2) 학업을 맺을 필요성 (3)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학교생활 중의 어려움은 (1) 학업과 정보습득에서 능력의 한계를 경험 (2) 인간관계의 어려움, (3) 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의 어려움, (4) 심리적인 어려움, (5) 학업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6) 미래와 취업에 대한 걱정 (6) 자기만의 정체감 형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북한 출신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상의 어려움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구체적인 의미를 진술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교, 상담기관, 상담자 차원에서의 정책 및 프로그램, 상담자 역할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북한출신 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조영아는 연세대학교 연세상담센터에, 전우택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조 영 아,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연세상담센터
전화 : 2123-4315 E-mail : life7777@yonsei.ac.kr

2000년 이후로 남한 내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 정착 및 적응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탈북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탈북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1998년 이후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에 들어간 탈북자는 모두 273명이며 이중 2003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탈북자만도 102명에 달하고 있다(전교학신문). 수적으로는 증가했지만 대학에 진학한 대부분의 북한 출신 학생들은 대학생활 중에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 남북한의 교육체계와 내용 또는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적응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 즉, 수업이나 시험 등의 구체적인 학업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과외 활동 등의 사회 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교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다(Baker & Stryk, 1984).

대학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Erikson, 1950), 청년기의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의 갈등과 혼란을 겪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통합된 자기인식과 정체감을 이룩하게 된다. 그런데 이민자나 난민들과 같이 문화가 바뀐 사람들은 이러한 이 시기의 발달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문화가 바뀌어서 오는 정체감의 혼란이 청년기에 부딪히는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혼란감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발달 단계에 따른 어려움이 이문화 적응상의 어려움과 겹쳐지면서 개인적인 문화적

응 역시 더욱 힘들어진다(Tobin & Friedman, 1984; Yeh, 2003).

현재 남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 출신 학생들은 남한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역시 대학생활 중에 급격한 문화적 차이를 절감하게 되며 대학시기 동안 남한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심리 발달상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대학생활을 통해 토대로 남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발견하며 사회에 정착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북한 출신 학생들은 남한 교육 체제에 적응할 때 근본적으로 몇 가지 면에서 취약하다. 이들은 남한 학생들과는 다른 교육 과정 속에서 다른 교육 내용을 학습했다.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인간상이 다른 사회체제에서 교육받았으며 남한 학생들과는 상이한 학과목을 이수했다. 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사회나 국사와 같은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남한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배웠다. 따라서 새롭게 학습해야 할 지식이 많고 때로는 새로 배운 지식을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탈북 이후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중국이나 제 3국에서 보내야만 했던 수년 동안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았다. 더구나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교육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북한에 있는 동안에도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탈북자들도 있어서 대다수가 학업상의 공백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남한의 같은 또래 학생들에 비해 교육 과정이 뒤쳐져 있고 새로이 학업을 시작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발달적 취약성, 대학시

기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북한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남한 대학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이 사례성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는 있으나 적응상의 문제점이나 이에 대한 분석,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혹은 학교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나 대응책도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탈북 대학생보다는 탈북 중고등학생의 남한 학교생활이나 적응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 청소년 8명을 심층 면접한 박선경(1998)은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예의바른 행동을 보이나 학습 방법 면에서는 부정적이며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습활동은 소극적이고 수업태도는 나쁘며 수업이 힘들고 재미없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이기영(2002)은 보다 구체적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포함한 전체적인 남한 적응실태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은 학업을 쫓아가지 못하고 남한 학생과의 학업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 및 진로설정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업이 전체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흘러 대학입학에 대한 진학이나 진로 설정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한다. 교사관계에서는 북한 출신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으며, 친구관계에서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남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놀이 문화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 심리적인 불안정감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만길(1999)은 연구 참여자의 폭을 넓혀 초, 중등 및 대학 재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편입학과 생활비 문제, 교과목과 교수 학습 방법에서의 차이 혹은 과외활동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학업상의 어려움, 학습 능력의 문제, 개인적이며 경쟁적이고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에 대한 괴리감, 인간관계상의 어려움 등의 유사한 주제가 부각되었다.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혜경(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할 당시에는 남한 교육 수준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부족하여 혼란스러움과 난감함을 경험하면서도 ‘대학진학을 남한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낯선 대학 체계와 내용,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도 하였다.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했으며 특히, 영어 및 남북한간의 학습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쉽게 정을 주지 않는 남한 친구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여 우울함과 외로움, 죄책감, 집중력 장애를 경험하면서도 힘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출신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적응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출신 학생들의 남한 학교생활 적응 문제가 남북한의 사회 체제, 교육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해 보건데 탈북 중 고등학생들의 적응 문제가 탈북 대학생의 적응 문제와 유사하거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루어진 연구들이 적고 연구 참여자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과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라는 학교 체제의 상

이함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만의 독특한 경험과 적응 양상, 대학생활이 북한 출신 대학생들에게 갖는 의미나 경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기대와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행동들을 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즉,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적응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북한 출신 대학생들만의 적응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 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북한 출신 학생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북한 출신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상의 어려움과 대처방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이나 적응지원 제도 및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 출신 대학생 10명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남학생은 6명, 여학생은 4명이었으며, 연령은 22세 이상 38세 이하로 20대 7명, 30대 3명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5명, 2학년 2

명, 3학년 1명, 4학년 2명이었다. 모두 1997년 이후 입국한 사람들로, 이중 2000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사람이 7명이었다. 참여자 10명 중 6명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본 연구자가 직접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하며 참여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다. 2명은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탈북 주민의 소개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2명은 연구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연구자의 부탁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대학생활 적응 실태를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10명 중 7명과는 개인 면담을 하였으며 3명과는 개인면담에 참여했던 3명을 포함하여 전체 6명이 모여 집단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위해서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질문지는 인적 사항, 대학에 입학한 동기외에 Baker와 Siryk(1984)이 제안한 대학생활 적응의 4가지 차원인 학업상의 어려움, 대인관계 상의 어려움, 학교 생활의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등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질문지의 질문은 기존 연구와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각 영역 별로 연구 문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예를 들면, “대학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남한 친구들과 사귄 때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소속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등이다. 면담진행 중에는 각 질문의 대답에 대한 더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후속질문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면담을 진행하

였으며 집단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간의 의견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유사성과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진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면담은 개인 면담, 집단 면담 모두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면담은 집단 면담의 경우 대학교 상담실이었으며 개인면담의 경우 참여자가 희망하는 비에 따라서 조용한 찻집이나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개인 면담의 경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집단면담도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3년 2월에서 5월까지 약 3개월이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는데 참여자 모두 흔쾌히 동의하였다. 면담 중 중요 내용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면접 분위기, 면접 후나 면접시작 전의 연락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특기할 만한 사항은 면접 질문지에 간단히 기록하였다. 면담 녹음 테이프는 다음 면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석사급 대학원생 한 명이 일차 전사하였고 연구자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전사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녹음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되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이름과 지명은 모두 삭제하고 원고 위쪽에 번호를 붙여서 참여자를 구분하였다. 각 면접의 분량은 개인면담의 경우 A4 용지 27쪽에서 40쪽이며 집단면담은 45쪽이었다. 총 분량은 295쪽이었다.

분석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면접 자료 자체에서 주제별로 유사성과 상이성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문제의 각 영역과 관련된 면접 자료를 정리하고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한 후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주제분석 방법(Patton, 2002)을 적용하였다. 분석에는 본 연구자들 외에 녹음 테이프0 전사직업을 도운 임상심리 전공 석사급 1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우선 세 사람은 각자 개별 면접 자료를 읽고 면접 자료를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분석한 후에는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지면서 차이나는 코딩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 사람간에 차이나는 부분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된 코드북은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개별 면접 자료를 코딩하는데 적용하였다. 그 다음에 만나서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이렇게 차이점을 발견하고 논의, 합의 수정하는 작업이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코드북을 만들었으며 이 코드북에 근거하여 개별 면접 자료에 대한 재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통일된 코드북의 각 항목에 각 사례의 해당 내용을 모두 적었으며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분류하는 비교분석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자료를 18쪽 분량으로 축약하였으며 이것을 해석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결 과

대학 진학 동기

학력 사회에 대한 압도되는 기분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들의 남한 사

회에 대한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 탈북자들은 얼마 안되는 남한 생활이지만 남한이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사회이며 학벌지향의 사회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남한의 취업난에 대한 소식을 메스컴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접하고 탈북자라는 위치가 앞으로 취업을 하고 직업을 갖는데 또 하나의 장애로 작용할까봐 걱정한다. 능력 없이는 주변에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남한 사회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을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따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한 학생은 남한 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메스컴 신문이나 TV 보면서, 그게 사회적으로 정답이라기 보다는, 한국 사회 교육열이 정말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능시험을 할머니들이 쳤다고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보니 여기는 대학을 안 나오면 안 되는구나. 북한에서는 대학가는 사람이 소수인데, 여기는 100명 중 70명이 대학을 간다고 하니..., 대학가는 사람이 다수고, 안 가는 사람이 소수고, 안 가는 사람이 특별한 계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는 대학을 나와야겠다, 대학 나오는 게 기본이다 이거죠. 기업체에서는 대학 안 나오면 서류도 잘 안 받고 하니까요.” [1학년 남학생, 26세]

학연을 맺고 싶은 욕망

대학은 북한 출신 대학생들에게 단순히 실력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처음에는 남

한 사회가 북한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이고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사회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한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남한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며 대학이라는 장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남한 사회의 보다 중심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사회는 자유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맥이라든가 지연, 학연,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닌가... 난 남한에 들어올 때 지연도 없고 혈연도 없어요. 그래서 난 학연만은 가져야겠다.. 그래서 힘들지만 대학에 왔지요 뭐” [4학년 남학생, 38세]

“(탈북자 중에는) 학교 다니다 휴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학업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빨리 돈벌어야 된다는 마음은 급하니깐..... 물론 나도 돈이 중요하지만 나는 사람들 사귀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고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야 된다니깐... 나는 혈연은 없으니깐 이거라도 가져야 한다.....” [1학년 남학생, 29세]

새로운 공부 기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출신성분이나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대학을 선택하는 외적인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처음에 대학 간다고 하니깐 시간 낭비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부터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공부하고, 실력으로 이 사회에서 내 힘으로 살자하고 왔는데, 내 자신을 잘 알지만 난 장사 같은 걸 해서 돈 벌 능력이 있다면 나도 대학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북한에서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그런 쪽으로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학년 남학생, 28세]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상의 어려움과 대처

학습과 정보 습득에서 능력의 한계를 느낌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가장 먼저 북한과 남한의 교육내용의 차이로 인해서 영어, 수학, 한문 등의 기초과목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남한 말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및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어는 가장 큰 난제로 다가온다. 영어는 1학년 입학에서부터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4학년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장벽이다. 면담에 참여했던 학생 중 두 명은 영어 공부를 위해서 다른 남한 대학생들처럼 어학 연수를 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교수들도 앞에서 영어로 진도 짝 나가고 있는데 혹은 영어, 한문 뭐 가끔가다 저희 신방과 법대 같은 경우로는 독일어도 많이 나가고 막 하는데 한국

애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제 2외국어로 독일어도 하는데 독일어나 일본어도 하는데 개들은 아 저게 무슨 말이구나 대충 이해나하는데 우린 저 책을 읽다가 한 단어 때문에 골수를 박거든요” [4학년 남학생, 30세]

언어적 장벽은 단지 ‘강의시간’이나 ‘외국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시간이 흘러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는다. 혹은 사용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나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어에서 오는 이질감은 북한 출신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내심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 또한 사소한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배워야만 하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저는 영어도 못 알아듣겠지만 한국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게 다 내가 배우는 전문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여기 와서 살아보니깐, 이게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배우는 거구나 그게 무시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게 지금은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같이 전달이 돼서 다같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2학년 여학생, 26세]

“무슨 학교 신문 쪽 보면 무슨 여성들이 뭐 마초맨이다 이런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쁘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초맨이 뭐냐하면 그런 이미지도

정확히 할려고 하면, 한참 물어보죠. 그 이미지가 뭐이나, 뭐 강한 남자 이 정도나, 아니면 아주 그 성적으로 비속적인 그런 거 끼어 들어가는 거냐, 그럴 때 내가 알기는 강한 남자 이 정도로만 하면 되지 그렇게 성적으로 난잡하다든가 그렇게 이미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알기 위한 거, 뭇도 모르고 사람이 우습잖아요 야. 마초맨이 좋은 거지 뭐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4학년 남학생, 38세]

또한 대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학교 및 전공 선택,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정보, 학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남한 학생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학교나 전공에 대한 기초적 정보도 이들에게는 누군가를 통해서 알아내야만 하는 것이 된다.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 역시 남한의 교육 체제나 내용에 대해 자신보다 더 무지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회적 지지망이 없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된다. 본 면담에 참여한 북한 출신 대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나 가족,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 통일부, 같은 북한 출신 선배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구체적이고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은 경우가 없었다. 대학에 입학한 첫해동안 뭇든지 스스로 알아서 찾아해야 했던 어려움을 한 북한 출신 대학생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대학 들어오면서, 옛날에 아무 것도 경험한 것 없고, 대학 소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안 갔고, 부모님이 알아봐 주는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깐, (첫

일 학년 기간 동안) 1년 안에 모든 걸 다 후다닥하고 나니깐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되요” [3학년 남학생, 25세]

그러다 보니 전공선택이나 진로와 관련해서 더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하게 된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닌 경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따르게 된다. 때로는 주변에서 잘 해낼 수 없을 거라는 얘기가 탈북 대학생들로 하여금 오기를 갖게도 하는데, 잘해내겠다는 오기와 강한 의지가 실제로 대학생활에 의욕과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만들기도 한다.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오기와 정보부족에 대해 북한 출신 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교수님 만났을 때 경영학 (전공) 할 거라고 하니깐 거참 거두 절미하고 안 된다 고 하셨어요. 아마 이전 우리 선배들이 공부 못하고 실력 안되서 못 따라가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많아서 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열심히 하고 싶은 맘도 강했고.. 이 땅에서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뭐 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오기가 생겨서 이 때까지 우리 탈북자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1학년 남학생, 28세]

“북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학교가 Y대하고 K대 인데, Y대는 처음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많이들 들어와서 공부했었고 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거죠. Y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 학교는 학점도 박하게 주니깐 K대

쪽으로 가는 게 나올 거다 말씀도 하셨는데, 그 때는 오기도 있어서, 내가 Y대 가서 열심히 해서 잘해보겠다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과나 학교에 대해 정보를 준 것은 없었고, 학교 (소개) 책자보고 지원한 게 다인데... 만약 지금 다시 선택을 한다면 간판만 보고 들어오지 않고 내가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아서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3학년 남학생, 25세]

결과적으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기대하는 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영어를 포함하여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 학업 성취를 이루기가 힘들다. 북한 출신 학생들이 기초지식이 부족한 것은 북한과 남한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 제도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중국이나 제 3국에 머물렀던 시간 동안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중간에 학업을 쉬었던 탓에 다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학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도 충분히 쌓을 수가 없었다.

“기초지식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남한) 애들은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연대 오는데, 나는 중국에서 1년 반 정도 있다 왔어요 대부분 1년에서 4년 정도 중국에서 공부 전혀 안 하다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 기초지식도 없고.....” [1학년 남학생, 29세]

또한 북한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 포레 고등학생과의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

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이럴 경우 체계적인 학습보다는 시험 위주의 단기적인 학업에 치중하게 되어 남한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 실력을 쌓기가 힘들어진다.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에 따라서는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결과 대학에 들어와서도 적성에 맞지 않는, 원치 않는 공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전체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는데, 성적 때문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 북한 출신 대학생은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다른 애들이 힘들어하는 법학 공부한다는 것이 나에게도 힘들어요. 원래 나는 법학을 전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신문방송학을 하려고 했는데 성적이 낮아서 신문방송학과는 못하고 법학을 하게 됐거든요. 이왕 된 거 열심히 하지 맘은 그랬는데 성적이 나쁘니 원하는 과도 못 갔다는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당장 학교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4학년 남학생, 30세]

성적이나 학업상의 어려움에 대해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대학이라는 곳은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공부를 해야하는 부분이 많고 공부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지도 받고 보충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로 학업 상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번에 그 교수님한테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지금은 이 이상은 더 못 도와주겠다. 다음 학기에 이 과목 재수강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말이 그렇지 학생들이 교수한테 찾아가서 계속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고. 내 개인지도 교수도 아닌데 좀 이해 안되면 내가 책을 보고 해야하는데..” [4학년 남학생, 30세]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어려움

학업상의 어려움 외에도 학교에서 좋은 친구 관계, 또래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남한 학생들과는 달리 중 고등학교로부터 이어지는 동창이나 친구가 없고, 같은 학년 학생들보다 나이가 수년에서 십년 정도까지 많아 실제로 형이나 누나 노릇을 해야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봐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남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다. MT나 개강모임 등 각종 학과 모임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해질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한 학생들과는 사고방식이나 관심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둘간의 간격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남한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의 미래나 개인적 욕구이며 이에 따라 관심도 컴퓨터, 게임, 여자친구 같은 것임에 비해서 북한 출신 학생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 북한의 미래, 통일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집단 면담 중에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공통된 대화 꺼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특히 북한 출신임을 가능하면 밝히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더욱 곤란해했다. 결과적

으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남한 학생과는 다르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남한 학생과 ‘좋은 관계는 유지하되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대학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한 북한 출신 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학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동창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많은데 보통 다른 애들은 다 동창회 있고 미팅 주선해서 애들 같이 나가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깐 그런 것도 잘 안되고 아무래도 많이 모르니까 애들과의 관계에서도 대화 같은 것도 그렇고.....” [1학년 남학생, 26세]

“학생들과 관계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힘듭니다). 거의 동기들은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그걸 극복하려고 같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정말 내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럴 때는 참 좋아하다가도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개네 들이랑 나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개들은 뭐 어느 만화 이야기며 게임 이야기며, 미팅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고 남북한 정세며 통일 이야기를 하니 서로 안 맞는 거라.” [4학년 남학생, 30세]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남한 대학생들에게 가장 거부감을 크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남한 대학생들이 경쟁적이며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집단 면담 중에도 “한국애들은 라이벌, 우리는 공동체”라는 한 학생의 표현에 면담에 같이 참여했던 전원이 동의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는 의견들이었다. 북한에 대해 무관심한 대다수 남한 학생들의 태도에서 오로지 자신의 앞날만 중요한 남한 대학생이라는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갖게 되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친한 친구’는 있으나 ‘진정한 친구’는 없다는 것이다.

“정이 얹어요. 내가 관찰해보니깐 이기적이고 이해관계로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친하다가 보니깐 내가 계속 밥 사줘야 되고, 저 친구 뭐 솔직하니 그대 그러면 안 만나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더 공허하고, 아주 그 많은 자본주의 사회 같은 그런 게 보이거든요.” [1학년 남학생, 29세]

한편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같은 북한 출신 학생들과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바빠 만나기 어려운 데다가 학생들에 따라서는 같은 북한 출신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별로 대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며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같은 학교 내의 북한 출신 학생들끼리 교류하고 정보나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모임이나 조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친구간에 이러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북에서 왔다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말투나 억양으로 인해 북한 출신임이 밝혀질 경우 무시당하거나 불이익,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까 염려한다. 현재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인식은 북한 출신임을 적극적으로 알리

게 되는 일에 주저하게 만든다. 면담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북한 출신임이 곧 특례 입학했다는 것이므로 이를 알릴 경우 뭔가 떳떳치 못한 느낌이 들어 꺼리게 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남한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경우 굳이 북한 출신임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노트필기나 리포트 작성 같은 구체적인 학업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또래보다 적어도 3-4년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업이나 사회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심적으로 편하지만은 않다.

북한 출신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같이 자신을 도와주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구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 같다. 그것은 북한에서의 사제 관계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개 북한의 선생님은 열성적이기는 하지만 먼저 찾아가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북한 출신 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와서 내 어려움을 말하는 것도 몰랐고, 사실은 처음이에요.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는 것도..... 솔직히..... 아닌 것 같구요. 북에서는 선생님과 내 어려운 얘기를 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이 먼저 불러서 뭔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있지만 내가 먼저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한다는 건..... 상담이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는 생소해요. 힘들 때 내 힘든 것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의지할 곳도 없고.....” [1학년 여학생, 26세]

심리적인 어려움

북한 출신 대학생 중에는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충격적 사건, 즉 심리적 외상을 가져오는 경험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탈북을 결심하게 했던 정치적 사건이나 기아경험, 탈북 과정에서의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들로 인해서 학교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안하고 우울한 경험을 한다.

“지금도 꿈에서 나는 중국이나 북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꿈꾸고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들 데려오는 꿈도 꾸고, 꿈에서도 북에 있기가 싫어서 중국으로 건너오려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꿈을 꾸고.....” [2학년 여학생, 35세]

또한 모든 것이 생소한 남한 생활 그것도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몹시 위축되게 만든다.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것도 같고 자신의 노력이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에 좌절하기도 한다.

“영어공부도 테입 사놓고 열심히 하고 교수님도 찾아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딱 답안 결과만 갖고 평가를 하니깐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과정도 같이 평가해줘야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3학년 남학생, 25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별탈없이 지낼 수 있었던 북한에서와는 달리 특히 남한에서는 매사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행동해야하는데 이러한

전환을 단시간에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아는 것도 부족하고 주변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좌절스런 마음은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 더 깊이 다가오는데, 남한 사회와 대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신감이 생길 즈음 도리어 주변의 현실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북한 친구들 얘기가 다들 3년째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만 잘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북한에서 온) 어린 애들은 오토바이 타고 막 방황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내 친구들은 공부며 취업 때문에 다 힘들어 합니다.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때를 돌아봐서 내가 처음과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낄 때 좌절감이 들고 힘든 것 같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남한 사회를 좀 알게 되니까 이제는 또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으로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고민이 쌓이니깐..... 이제는 3년이면 많이 알았으니 옛날에는 뭐 어떻게든 살겠지, 내가 죽을 목숨 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든 못살겠나 했는데, 이제는 서울대 출신도 취직 못했네, 그런 소리 들으니..... 그런 애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까,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나중에 북한 친구들 만나서, 이래 가지고 친구들 어케 (어떻게) 만나나 그런 것들도 고민했었고.... 나는 뭐하는 건가 비교도 많이 되고, 좌절스럽고 해서.....” [3학년 남학생, 25세]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
나이가 많아서 국가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정착 지원금 액수가 적었던 시기에 남한에 입국했던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때 보니깐 (탈북자 중) 독신들은 공부 잘 못하고 가족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구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살면서 학비는 면제되지만 먹고 사는데 돈이 들어가고, 같이 앉아서 술이라도 한잔 먹고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해도 따라 갈까 말까 하는 판에 돈도 벌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힘들지요.” [4학년 남학생, 38세]

미래와 취업에 대한 두려움

열심히 노력해도 북한 출신이라는 점, 또래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은 이들의 대학 생활에 몇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처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현실적인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서는 졸업 후에 나이로 인해서 취직이 안 될까봐 걱정을 하게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졸업 후에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이가 많을수록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학업에 적응하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졸업해도 나이 때문에 원하는 직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결정적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린다. 자신의 또래보다 10년 이상 나이가 많은 북한 출신 대학생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습을 나가보면 내가 나이가 35세인데 아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면 36세가 되는데

거의 마흔 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싶더라구요. 내 나이 때 되면 내가 하려는 일을 계속 하다가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시작하면 그 사람들보다 잘한다는 담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리고 이제 난 시작하면 나이가 많은데다 시작하면 대미가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고 다른 걸 해야되지 않을 까 싶어요. 취업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어린 사람들이 잘 되니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적응하기도 어렵고.....” [2학년 여학생, 35세]

자기만의 정체감 형성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남한 학생들과는 다른 포부와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자신의 존재이유와 나이가 대학 졸업 후의 자신의 진로에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선택한 대학생활이 갖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북한 출신 대학생으로서 시대적, 사회적 책임을 가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남북한의 차이를 줄이거나 서로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싶은 희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일에 기여하거나 통일 후에 북한 땅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품는다. 또한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특히 학년이 높은, 남한에 거주한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수용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통일이 20년 안에 될 거라고 보고

우선 통일 조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해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나는 고향 땅에 가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학년 남학생, 29세]

“나는 북한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남한 식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4학년 남학생, 30세]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근래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질적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면접 자료 통해 밝혀진 바를 이들의 대학 지원 동기, 대학생활 적응상의 어려움과 노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 드러난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탈북 대학생들은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이혜경, 2003; 한만길, 현주, 김창환, 오기성, 1999)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대학 생활 적응의 기본이 되는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및 언어 능력의 부족, 기초적 지식의 부족, 적절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특히 대학 저학년 시기의 적응 및 학업 수행이 어려웠고 저학년 시기의 학업성적에 의해서 과가 정해지는 학부제 실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저학년 시기의 학업성적이 낮아 원하는 학과를 가지 못하게 되어 학년이 올라가도 동기나 학업 면에서 점차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겪기도 하였다.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관련해서 가장

특정적인 부분은 학업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역할이다. 북한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가장 결정적 장애로 작용한다고 느끼는 것이 ‘영어’과목으로 학생들은 “영어만 잡으면 다른 것쯤이야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 출신 중 고등학생들도 영어 과목을 어려워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지만(박선경, 1998; 이기영, 2002; 장창호, 2000; 현주, 2000) 중 고등학생의 경우 영어를 모르는데서 비롯되는 영향력은 영어 한 과목에만 그치는데 비해 대학생들은 전공이나 학과목을 불문하고 영어를 모르거는 전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남한 대학생들과 느끼는 영어 실력의 차이는 북한 출신 중 고등학생들이 남한 중 고등학생들과 느끼는 영어 실력의 차이보다 더 커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더 컸다. 자신의 전공이나 학과목이 영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본인이 영어에 얼마나 익숙해져있는지 여부가 대학생활 적응 특히 학업 적응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학업 뿐 만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에 자신감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데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한 대학생들 수준에 맞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학교 내 어학원과 같은 시설은 당장 학업에 필요한 영어를 기초부터 배워나가야 하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 출신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대규모 대학의 경우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학과목의 개설이나 다른 제도적 배려를 고려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입학 전 예비 대학생을 위해 개설하는 과목에 북한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초 영어 과목 강좌를 개설하거나 학교 내 교육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일대일 혹은 집단 별의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학교 규모가 소규모로 북한 출신 대학생의 수가 적은 학교는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논의하겠다.

둘째, 면담에 참여했던 대학생들 중에 남한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즉, 북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검정고시를 통해서 입학한 경우들로 현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남한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기초 실력 면에서 부족할 뿐 아니라 남한 문화 및 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인 학교 생활적응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화적 차이를 적절히 해소하고 남한에서 남한 교육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북한 출신 학생들이 갑작스런 남한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서 오는 문화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예비교육 또는 대안 교육의 필요성을 많은 연구자들이 제기한 바 있다(안연진, 2002; 이기영, 2003; 이혜경, 2003; 정병호, 2001, 2003). 본 연구자 역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한 정책적 대안으로 생각하며 이 대안교육의 내용 안에 검정고시를 치름으로서 오는 문화의 부재를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적응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대안교육의 대상이 성인 및 대학생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소규모 대학교 내에 흩어져 있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적응 문제 특히, 영어 능력의 향상 및 문화적응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출신 학생들은 대학을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 내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학이나 전공 선택과 같이 가장 초기에 부딪히는 문제에서부터 입학 절차, 학과

목 내용, 학교 내 기관, 수강신청 방법, 동아리 참여, 직업 세계 등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를 얻더라도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원에 의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본 면담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전공신청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학과를 전공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이들이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은 남한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학에 입학하고,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이기영, 2003). 또한 북한 사회에서 익숙한 수동적 자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전우택, 2002). 북한 출신 학생들은 인지적으로는 적극성이나 자율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하지만 실제로 익숙하지도 않은 사회에서 기존 사회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온 적극적 태도로 쉽게 전환하게 되지는 않는다. 또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려는 노력을 하다가도 정보원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포기하게 되며 정보의 부재, 적극성의 부재는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보 그 자체이며 둘째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및 태도에 대한 것이다. 필요한 정보는 남한 입국부터 대학 졸업까지 각 단계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하나원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지도를 통해서 더 현장감 있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및 전공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규모가 큰 학교와 규모가 작은 학교의 장단점,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업능력과 기준 등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는 특례 입학

과정에서 교내 상담기관과 연결하여 구체적인 진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입학 후에는 북한 출신 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학교생활 및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 상담 기관이나 학교 내 상담기관, 교육기관 등을 소개하여 이것을 활용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교육 할 수 있다. 상담 기관에서는 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중에는 당면 문제를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대처행동을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는 활동들이 포함 될 수 있다.

넷째, 북한 출신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한 동기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이들은 대학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나이 차이, 문화 차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융화되기를 희망한다. 뒤떨어진 학업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남한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활동을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모임에 참석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고민을 하는 등 대인관계와 학업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탈북 주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 대학생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같은 북한 출신 학생들과의 차이에서 오는 생소한 감정은 북한 출신 청소년들이나 일반 탈북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이기영, 2002, 2003). 일반

적으로 대학에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와 같이 대규모의 학교 혹은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친구를 사귀기가 매우 힘들다. 중 고등학교 때 보다 친구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본 연구 면담에서도 남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개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될 도와줄까 라고 물어본다면 친구를 대달라고 말하겠어요’라는 한 참여자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을 도와줄 수도 있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다소간의 지원과 배려를 원하고 있다. 한편 북한 출신 학생들 간의 모임이나 교류도 그리 빈번하지 못하다. 비교적 북한 출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들 간의 만남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일수록 규모가 큰 학교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임을 계획하지 않고는 서로의 존재 자체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중에는 서로간의 만남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으며 모두가 당장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가며 구심점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들이 같은 북한 출신 학생이든 남한 학생이든 간에 동료로서 친구로서 조연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혼자서 방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교 내의 상담기관 혹은 상담자는 북한 출신 대학생

들을 위해 또래 상담자를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조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남한에 거주한지 오래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북한 출신 고학년 대학생은 이들의 조연자 혹은 집단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혹은 대학교 상담기관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동료 상담자 훈련을 받은 남한 학생들 역시 좋은 동료 상담자가 될 수 있다. 남한 대학 내 상담자 혹은 상담기관은 이러한 동료 상담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상담 역할의 자문이나 감독을 담당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들의 자조모임의 시발점이 되어 줄 수 있다. 혹은 북한 출신 학생들과 남한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간관계 훈련 집단 프로그램은 한편으로는 대인관계 어려움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후 남북한 학생들의 통합과정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실험의 장이 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 출신 대학생 중에는 특별히 대학 내에서의 어려움 외에도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고통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생활하는 와중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변에서 쉽게 알아 채 수 없지만 고통을 겪는 개인에게는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부분이다. 일반 탈북 주민들의 경우에 우울증이나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 장애의 유병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더라도(강성록, 2000; 민성길, 신의진, 2001),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예방적 개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출신 학생들은 일반 탈북 주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어려워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편이다(조영아, 2003). 그래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쉽

게 드러나지 않으며 개인상담이 필요하다더라도 이러한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본 집단 면담 중에도 북한 학생들은 ‘상담’ 혹은 ‘도움’이라는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해도 북한 학생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한다고 말했는데 이 표현에 대부분 동감을 표명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정신건강 관련하여 도움을 추구하는데 소극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심리 상담기관 및 상담에 대한 적절한 소개와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상담에 대한 북한 학생들의 기대를 확인하고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이들의 문화적 배경과 욕구에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치료적 상담 서비스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동료 상담자에 대한 자문 활동을 통해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 학생들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자는 구체적 문제 상황과 문화적 적응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학벌 사회, 연고 사회, 능력사회라는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남한 사회 정착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대학을 선택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현실적인 교육 격차와 문화적 차이로 학업 및 인간관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재 대학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북에서 남으로의 힘겨운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의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또래의 남한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와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는 청년기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이 들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한 특별한 적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

인 제도적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것을 위해 상담자나 상담기관은 학교 내의 정책 제안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집단 내의 동료 지지자를 발굴해 내는 촉진자 및 자문자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즉, 주로 심리치료자의 기능만을 담당했던 대학 내 상담자나 상담 기관의 기능은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대상에 맞게 확대되어야 하며, 기존 북한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특히 보다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상담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Atkinson, Thompson & Grant, 1993).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대학 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 출신 대학생의 적응상의 문제를 깊이있게 이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상담 서비스의 내용을 제안했다. 그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심리치료자의 역할에 머물렀던 상담자 역할이 대상과 필요에 맞게 확대 변화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했던 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적어도 같은 학교 내에 10명 이상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수학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전체 북한 출신 대학생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탈북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활동가나 실무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탈북 주민들의 주거 지역에 따라서, 예를들면 대규모 도시인지 아니면 지방 소도시인지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적응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 출신 대학생들도 소규모 학교에 한 명이 있는

경우와 대규모 학교에 많이 재학하는 경우는 주변의 관심이나 시선이 달라질 뿐 아니라 학교 시설이나 자원 활용, 수학 분위기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출신 학생이 매우 드문 소규모 학교 혹은 지방 소도시에 다니는 북한 출신 학생들의 경험은 이들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외적인 요인들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지역적, 규모의 차이가 분명해질 때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책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북한 출신 학생들의 적응 양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초기 문화적응의 과정 중에 있으며 대학생활 시기 중에도 학년의 변화 혹은 적응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경험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의 연구 대상이 앞으로는 보다 넓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적응양상, 남한 생활 경험의 폭, 전공, 성별 등에 따른 경험의 일반성과 특수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대학 시설이나 지역, 규모 등의 주변 환경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록 (2000).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민성길, 신의진 (2001). 기아와 북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정기 학술회의 자료집.
- 박선경 (1998).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 석사학위 논문.

- 안연진 (2002). 북한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문화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카톨릭대 석사학위 논문.
- 이기영 (2002).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 청소년 연구*, 13(1), 175-224.
- 이기영 (2003).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주민과의 교류 실태 및 통합수준; 질적 연구조사의 결과.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에 통합과 융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학술 발표 자료집.
- 이혜경 (2003).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체험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장창호 (2000).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 사업적 고찰. 강남대 석사학위 논문.
- 전교학신문 (2003). 탈북자들의 대학진학 현주소. *전교학 신문*, 10월 13일자.
- 전우택 (2002).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 전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6(1), 47-62.
- 정병호 (2001). 탈북 학생 사회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인적 자원부.
- 정병호 (2003). 탈북, 아동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문제와 대응방안. 탈북 청소년 교육 제도의 현황 및 제안: 북한 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아동, 청소년 분과 세미나 발표집.
- 조영아 (2002).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 기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한만길, 현주, 김창환, 오기성 (1999).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 (2000). 탈북 학생의 남한 학교 적응하기. *교육개발*, 가을, 92-101.
- Atkinson, D. R., Thompson, C. C., & Grant, S. (1993). A three-dimensional model for counseling racial/ethnic minorit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1(2), 257-277.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abil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Erikson, E. H. (1950). *Chil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obin, J. J., & Friedman, J. (1984).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stresses confronting Southeast Asian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Operational Psychiatry*, 15, 39-45.
- Yeh, C. J. (2003).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9, 34-48.

원고접수일 : 2003. 12. 12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 13
 게재결정일 : 2004. 2. 3

A Qualitative Study of North Korea Students' Adaptation to South Korean College Life

Young-A Cho

Woo-Taek Je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North Korea students' adaptation to South Korean college life. Qualitative interview was done on 10 students from North Korea who were studying at colleges located in Seoul. The interview asked questions on reasons for college enrollment and difficulties experiences in college life. Data from the interview were analyzed using theme analysis method. Results showed that the reasons for college enrollment were (1) South Koreans' emphasis on high education (2) Need for personal connection through college life (3) motivation to learn. Students reported that difficulties they experienced in college life were (1) limitations in their ability to learn and information collection (2) difficulties in personal relationship (3) difficulties in asking help from others (4) psychological problems (5) hardship in working and studying at the same time (6) anxiety about the future and getting a job, and (7) problems in self-identity. I described how the difficulties affected their life in college. I also discussed how schools, counseling centers, counseling policies and programs, and counselors may approach their problem. Finally, I presented strength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North Korea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life